

설교 이렇게 준비하라

| 정학진 목사 wonchun7@chol.com 포천일동교회 담임 시인

1. 일반적인 설교에 대한 소고(小考)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원칙, 복음)을 변하는 시대(문화, 세상)에 전하는 작업이다.

존 스토틀 "한 손엔 성경, 다른 손엔 라디오"

칼 바르트 "한 손엔 성경, 다른 손엔 신문. 1세기와 20세기 이어주는 가교(架橋)"





문화란 무엇인가?

폴 틸리히 "종교는 문화의 내용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49

현대는 문화전쟁 시대이다. 현대 미국은 3M으로 세계를 지배한다.

- 1) M _____ - 컴퓨터(테크놀로지) 지식, 정보의 문화
- 2) M _____ - 음식(음식문화) 기초, 본능의 문화
- 3) M _____ - 영화(오락산업) 쾌락, 관능의 문화

설교의 중요성은?

- 1) What - 무슨 말씀을 전할 것인가? (해석의 문제-Hermeneutics)
- 2) How -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방법의 문제-Knowhow)

어떤 내용을 전할 것인가?

- 1) 제목잡기 - 내용을 그대로 / 큰 주제 / 기타 다른 주제
- 2) 질문하기 - 중요한 시간 (흥미 유발, 집중)
- 3) 연구사 검토 - 회중의 신뢰를 얻는 시간
- 4) 본문해설 - 독특한 시각으로 (그러나 보편, 타당해야 한다)
- 5) 마무리 - 앞의 내용을 다시 확인.

설교자의 자세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렘 26:2)

1)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감하지 말고 모두 전해져야 한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렘 26:3)

—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디도 감해선 안 됨.

“여호와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렘 23:30)

2)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더하지 말고 그대로 전해져야 한다.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잠 30:6)

“여호와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렘 23:31)

3) 설교자는 심부름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심부름꾼은 자신의 마음대로 내용을 바꿀 수 없듯,
설교자도 자신의 취향에 따라 말씀을 전하거나 뺄 수 없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렘 26:8)

2. 청년목회 설교에 대한 소고(小考)

방 법 (3M)

- 1) Ice Breaking – 얼음깨기 (M, H, Q)
- 2) Gospel – 의미, 목적 (Main Meaning)
- 3) Conclusion – 마무리, 결론 (Movie)

해석의 예(例)

인접학문의 중요성 (말뚝 박기 아닌 장독 묻기)
"제총요(祭塚謠)"

白犬前行黃犬隨	흰둥이가 앞서가고 누렁이가 뒤따르며
野田草際塚累累	들밭 풀 가에는 무덤들이 즐비하다.
老翁祭罷田間道	늙은 할아버지는 제사 마친 밭 사이 길에서
日暮醉歸扶小兒	저물녘 취해서 손자에게 부축되어 돌아온다.

성경의 예 - 코드 찾기 (성경을 보는 기본적인 시각(Perspective))

1) 성경이 쓰인 목적 (요 20:31)

2) 가장 중요한 질문 (마 16:16)

1) 족 보 - 4복음서를 보는 눈 (마1:1-17 눅3:23-38)

2) 저가 뉘기에 (마8:23-27 막4:35-41 눅8:22-25)

3)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눅5:1-12)

4) 무슨 꿈을 꿀 것인가? (창37:5-11)





3)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1) 구원의 확신 갖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도록)

2) 성령의 충만 받도록 (성령 降臨과, 內住하심, 充滿하심)

3) 꿈꾸며 소망 갖도록 (2J와 2K)

예배 포스트모던에 답하다

| 조성돈 교수 huioscho@naver.com 목회사회학연구소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교회에 청년이 줄어들고 있다면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해법은 무엇일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훌륭한 사운드가 뒷받침되고 많은 무리의 찬양인도단이 등장하는 청년중심의 예배를 강화하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주일예배가 점점 찬양중심의 열린예배로 변화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을 교회로 불러 모을 수 있는 해법이며 동시에 교회가 변화되어야 할 방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 마치 80년대에 본당에서 기타를 칠 수 있느냐를 가지고 그 교회의 개방성과 진보성을 엿보았던 것처럼 오늘날은 그러한 열린예배를 수용할 수 있느냐로 그 교회의 방향성을 점치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이머징 교회 운동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댄 김볼(Dan Kimball)은 이러한 열린예배, 즉 구도자 중심의 예배(Seeker sensitive Worship)는 구시대적이며 오히려 교회에서 청년들을 내몰고 있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한국교회로 돌





려 본다면 우리는 현재 구도자 중심의 세대에서 마지막 차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이 대세인양 몰아 부치며 주일예배마저 그 모양을 열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말 김볼의 판단이 정확하다면 분명 한국교회는 돌아서야 할 순간을 놓치고도 가속의 힘을 만끽하는 기차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의 이야기는 무엇일까 귀 기울일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

구도자 중심 이후

구도자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교회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교회의 모습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거기서는 되도록 교회의 상징들을 내려놓았고, 교회의 고전적 음악들도 뒤로 하였다. 분위기는 되도록 무거움을 벗고 현대적인 감각으로 밝은 조명과 현대적 성구들을 사용하였다. 교회를 처음 오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부담감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 것이다.

거기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교회는 지루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찬양은 그들의 음악을 쫓아갔고 지루한 교리보다는 생활의 주제를 드라마로 풀어주었다. 분명 구도자 중심의 교회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안민턴 세대들을 교회로 끌어 들였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를 지루하고 의미 없는 곳이라고 여기던 베이비부머들이 이러한 노력으로 교회로 많이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볼 역시 그러한 구도자 중심의 예배에서 1990년대 중반 많은 결실을 보았다. 그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사역하던 곳에서 11명의 고등학생이 이러한 방법으로 250-300명으로 늘어났다. 그런데 불과 몇 년 후 그는 위기를 감지한다. 그들은 이전에 그가 상대하던 그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이들을 그는 이전과 구분되는 새로운 세대로 보았고 이들을 이머징 세대라고 칭하고 있다. 여기서 이머징은 차세대, 새세대, 또는 떠오르는 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이다.

이들은 분명 그 이전의 세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그는 직감한 것이다. 즉 이들에게는 이전의 그 화려했던 영상이나 프로그램, 드라마 등으로 흥미를 끌어낼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한 것이 요란한 음악을 멀리하고 조명도 양초만을 가지고 다락방과 같은 분위기의 집회장소로 그들을 끌고 간 것이다. 그의 말을 빌리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를 드리던 무덤 속으로 그들을 끌고 들어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영감에 의해서 시도되긴 했으나 상당히 모험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자신도 그러한 불안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십대들이 그곳에서 영적 경험을 하게 된다. 신나는 즐거움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알고 보면 그들에게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던 거다. 이것이 이전 세대와 구분되는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독교 이후 세대

이머징 세대의 특징은 기독교를 접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이전의 세대인 베이비부머들은 교회에 흥미를 잃어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흥미를 다시 찾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자녀 세대인 이머징 세대는 기독교를 접해 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특징을 킴볼은 기독교 이후 세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교회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다. 그리고 현재 다원주의적 포스트모던 문화와 가치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가치, 도덕, 신념, 그 어느 것도 유대-기독교적 세계관에 기초를 두지 않았다.

교회는 그들에게 무의미하거나 또는 흥미롭지 못한 곳이다. 그들에게 영성은 주관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종종 세계의 종교적인 신앙을 이것저것 섞어 놓은 것이다. 특히 그들은 주로 조직적으로 설립된 그 어떤 종교에 가입한다는 것을 반대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주로 매우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교회는 그냥 낯선 곳이라는 것이다. 특별히 연관될





것이 없는 이방의 땅이다. 오히려 그 조직화된 모습에서 반감을 느끼게 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라고 본다. 김볼의 이야기는 이런 그들에게 이전의 세대에게나 통하였던 흥미 위주의 전략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 낯선 곳에서 영적인 경험을하기를 원하는 것인데 교회는 오히려 이들이 이러한 영적인 것들 때문에 거부감을 가질까봐 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이야기에 이들이 지루해 할까봐 교회는 그런 이야기들을 애써 숨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포스트모던 세대

현 세대를 이해하는 또 다른 키워드는 포스트모던이다. 포스트모던에 대해서 지면 상 군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중요한 점은 유대-기독교라는 단일한 사고체계나 가치관이 중심이었던 사회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바닥에서부터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는 일이 생겨난 것이다. 또한 포스트모던의 세대는 한 존재 안에서 다양한 종류의 삶의 형태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래서 그들을 이해할 수 없으며 또한 붙잡을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김볼은 이들을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은 세대라고 칭하였다. 그 말이 의미하는 바는 이들이 영적 경험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즐겨하고 있다.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400명의 학생들에게 설문을 해 보았다. 그들 중 75%가 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영적인 다양한 것들을 혼합하여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들이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희소식일 수 있지만 문제는 이들을 어떻게 기독교화할 것인가는 과제로 남게 된다.

그런데 〈세상을 정복하는 기독교 문화〉라는 책에서 크라우치는 포스트모더니티 이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는 포스트모더니티의 특징을 대형쇼핑센터에 비유하고 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지만 중심 되는 것이 없는 것이 포스트모던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의 지적은 대형교회들이 이러한 형태를 닮아 있다고 한다. 대형교회들은 실험적인 교회들이 거둔 성과를 보고 그것을 일구어낸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 인재들은 아마 그의 추측에 의하면 갑자기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생긴, 지친 젊은 목사들이다. 대형교회들은 그들에게 안정적인 봉급을 주며 더 많은 고객들을 끌어 오게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시 스타벅스가 문화적 영향력을 미치며 비슷한 커피점들을 만들어 가듯이 독립적 포스트모던 교회들을 문화적으로 흡수해 갈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그가 지적하는 것은 이러한 포스트모던 이후를 갈려면 개인주의와 소비주의를 극복해 나가야 하는데 그 방법은 세례와 성만찬이라는 성례에 있음을 강조한다. 세례가 우리의 왜곡된 이기심을 극복하고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편입해 간다면, 성만찬은 가장 기본적인 물질, 즉 떡과 음료만 소비하며 그 소비를 예수를 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 안에서 우리는 평등한 소비로 부름을 받는다.

김볼은 포스트모던을, 그리고 크라우치는 포스트모던 이후를 주장하지만 이들에게서 공동적으로 발견되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이 세대가 고전적 가치들이나 전통적 예전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볼이 개척하여 섬기고 있는 교회 이름이 「전통적 믿음교회 Vintage Faith Church」 인 것인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젊은 세대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빈티지라는 개념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전통에 대한 회귀라고 볼 수 있다. 어찌면 이제 교회는 이들을 이끌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를 짊어지게 된 것인지 모른다.





볼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고귀한 예배,
The Emerging Worship」이라는 책에서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를 위한 대안적 예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의 7장에 보면 이머징 예배의 모습이 보인다.

김볼은 먼저 오늘날 예배가 하나의 공연이나 쇼가 되고 있다고 반성한다. 즉 예배자들이 주체가 되지 못하고 앞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고 있는 관객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에서 그가 제시하는 것이 유기적(Organic) 예배이다. 이 예배는 찢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유기적인 흐름에 따라 움직인다. 예배모임은 찬양, 성경봉독, 간증, 침묵의 시간, 찬양, 설교, 영상, 그리고 침묵과 묵상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러한 요소들에 얽매이지 않고 자리를 떠나 예배실 주변에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리고, 또는 기도문을 쓰기 위해서 각 장소들로 이동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과연 이것이 예배가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솔직히 든다. 정해진 틀의 안정이 없고 사람들의 이동까지 허용해야한다면 이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김볼은 예배보다는 예배모임이라고 특별히 이름하고 있는 것 같다. 안정 보다는 살아있음에 더 무게를 두는 것이다. 그리고 참여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도 그에게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 같다. 한국에서는 주일예배 외의 기도회 형식을 빌려서 시도해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둘째로 그가 제안하는 것은 성스러운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이머징 세대는 매우 시각적이다. 이들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과 경이로움을 열망한다. 이를 위해서 그들은 영적인 환경을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이머징 교회의 예배모임에서는 도처에서 십자가를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그것은 테이블 위나 놓여 있거나, 다양한 장소에 걸려 있기도 하고, 곳곳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기도 하다. 고대의 느낌을 주는 십자가가 많이 사용되는데 어떤 교회는 켈트 십자가를 사용하고, 또 어떤 교회는 동방교회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것은 이전의 교회들이 구도자들을 위하여 교회의 상징들을 숨겨 놓았던 것과 반대되는 것이다. 한국교회 역시 현대적 분위기로 교회를 만들면서 십자가가 사라지

고 때로는 영상을 위한 스크린 뒤에 감춰지는 일이 있는데 그리 다르지 않은 양상이다. 이에 반해 이머징 예배에서는 십자가를 통해 예배모임의 초점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 한다. 또한 그들은 고대의 십자가를 사용함으로써 기독교는 고대의 신앙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미학적으로 상기시켜주려 한다.

이머징 예배모임에서 또 특별한 것은 곳곳에 설치되는 기도처소이다. 이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무릎 꿇을 수 있는 곳으로 거기에는 영적인 진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장식이 달린 상징이나 소품들로 꾸며진다. 예배모임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예배의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상징과 창의적 방법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구절들로 구성되는 이 예배처소에서 홀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다.

또 촛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예이다. 그들은 촛불을 곳곳에 놓고 테이블은 벨벳 천으로 감싸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예배실을 거실과 같이 꾸민다. 이를 위해 소파를 갖다 놓기도 한다. 모든 의자들은 무대를 바라보는 형태가 아니라 무대를 중심으로 둘러싸는 형식을 갖춘다. 그리고 유기적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움직임이 가능하도록 한다.

다양하게 경험되는 영성

셋째는 다감각응용적인 접근방법이다. 다감각응용예배는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그리고 경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예배가 찬양, 침묵, 설교, 그리고 예술을 포함할 수 있고, 또 훨씬 더 근사한 표현의 스펙트럼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다감각응용예배에는 스크린을 이용하여 잔잔한 이미지들이나 상징에 관한 비디오 클립들, 그리고 반복되는 이미지들을 보여줄 수도 있고 다양한 미술작품들을 보여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외에도 직접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설교나 찬양시간에 사람들이 가





서 그들의 예배를 표현하는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미술처소를 설치하는 것도 좋다. 특별한 일이겠지만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실 안에서 빵을 구운 적도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배실 안으로 걸어 들어올 때 공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라는 예배의 주제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머징 예배를 간단히 정리한다면 신비감이 우러나올 수 있는 분위기의 창출과 기도처소, 미술처소, 또는 작문처소와 같이 유기적 분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대 위에 한 사람을 통한 예배의 집중을 중요시 하던 이전의 예배와는 달리 다 초점으로 나뉘어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그것이 과연 질서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가능한 일일까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아마 이것은 필자가 아직 이머징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이머징 예배에 대해서 체감으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이라는 의미에서 시도해 볼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전에 독일에서 유학시절 폐제 공동체형 기도회를 독일교회에서 실행하는데 참여해 본 적이 있다. 그리 크지 않은 공간에 수십 개의 촛불이 켜져 있고 클래식 기타의 반주에 맞추어 단순한 멜로디와 가사의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임이었다. 보조기구가 있기는 했지만 그리 짧지 않은 시간동안 참석자들은 다들 무릎을 꿇고 그 모임에 임했고 별다른 메시지 없이 찬양과 기도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모두 그 기도회에 몰입했고 깊이 있는 영적 임재를 경험했었다.

이머징 예배를 연구하면서 얻게 되는 느낌은 바로 이러한 기도회의 형태였던 것 같다. 잘 짜여진 예배에 의해서 몰려가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스러우면서 자유히 영적 분위기에 매몰되어 가는 그런 느낌이다.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분위기가 따분할 것이라는 우리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젊은이들이 찾고 있는 예배는 이런 것이라고 김볼은 주장하는 것이다.

이머징 교회의 설교와 전도

설교에 있어서도 이머징 교회는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전의 교회가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면 이머징 교회에서는 구원 이후의 이 땅에서의 삶을 강조한다. 그리고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보다는 진리가 되신 그분을 이야기하며 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근대의 사고방식에서는 사실이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신념이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머징 교회에서는 경험이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신념이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또 이머징 교회의 설교에 있어서 특별한 점은 포스트모던이라는 상대주의의 세상에서 성도들에게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하려한다는 것이다. 즉 상대주의에 편승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성에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 이머징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전도에 관한 것이다. 근대교회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설득하려 했다. 특히 근대교회는 전도를 위한 행사를 준비하여 사람들을 그곳으로 초청하는 일에 몰두 하였다. 그러나 이머징 교회의 전도는 대화에 중점을 두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 치중한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전도를 위해서 행사를 마련하기 보다는 작은 공동체들을 형성해서 비신자들을 자연스럽게 초청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은 공동체들은 삶이 나누어지는 현장이나 사회 구제 모임, 그리고 정기 기도 모임 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회에 주는 도전과 가능성

이머징 세대의 발견은 먼저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것은 구도자 중심의 교회형태에서 젊은이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위기감이 긴장을 낳았고 그 긴장은 원인에 대한 관심을 집중케 하였다. 그 결과가 바로 이머징 세대에 대한 발견이었다. 한국교회



는 어떠한가. 한국교회 역시 지난 20여 년간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도입되고 정착되었다. 특히 최근의 약 10여 년간은 CCM을 중심으로 하는 음악군이 교회에서 형성되고 다양한 찬양집회와 찬양예배가 정착되었다. 대부분의 교회에 가보면 예배실 안에 드럼과 전자악기가 구비되어 있고 발달된 방송 시스템이 그들을 떠받치고 있다. 예배실은 밝은 조명으로 채워져 있고 이전에 보았던 벨벳천의 휘장이나 커튼들은 사라졌다. 예배실 전면에서 십자가와 같은 상징들이 사라져가고 그 자리를 스크린이 채워가며 그나마 있는 십자가도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구석으로 사라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찬양 중심의 열린예배는 점점 목요일에서 주일로 진입해 들어왔고 이제는 주일예배가 몇 부로 나뉘어져 있다면 그 중에 한 번은 찬양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즉 교회는 열심히 젊은이들의 취향을 쫓아갔다. 그런데 지금 결과는 어떠한가. 그래서 젊은이들이 교회에 남게 되었는데는.

한국교회도 변하고 있다

요즘 열린예배를 중심으로 한 교회들에서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초창기에 보였던 그러한 호응들이 없는 것이다. 이러한 구도자 중심의 교회 형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관성에 의해서 흐름은 멈추어지지 않고 있다. 지금도 새롭게 지어지는 교회들이나 리모델링되는 교회들을 보면 구도자 중심의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무대가 형성되고 조명과 음향이 전문공연시설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교인들은 그러한 구도자 중심의 예배에 대해서 식상해하고 있다. 아니 교회답지 못한 이 모습들 때문에 실망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새로운 신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교회의 예배형태에 대해서 심한 반감을 표시하기도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러한 구도자 중심의 예배는 구도자가 기피하는 예배라는 특이한 현상을 만들고 있다.

최근 필자의 수업에서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지도하는 전도사가 보고하기를 자신

의 청년부에 새로이 나온 성도들이 진지하게 찾아와서 찬양단이 중심이 되는 집회에 대해서 항의를 하였다는 것이다. 교회를 새롭게 다니게 된 그들에게 그러한 찬양은 반감만 불러온 것이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전도사는 새롭게 교회를 다니게 된 청년들과 임원들을 모아서 정책수련회를 다녀왔다. 그 결론은 역시 찬양 중심의 집회가 청년들에게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최근에 전통적 예배를 고수하는 교회들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또 얼마 전에는 한 신문에서 신학강좌를 하고 있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국민일보 2008.2.1) 거기서는 칼빈의 기독교강요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 등이 강의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학강좌들이 어떻게 보면 고리타분하고 따분할 것 같은데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분명 교회는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현대인들의 종교성에 읽는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단지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통계청에서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천주교가 1995년부터 2005년의 십년 사이 74.4% 증가하였다. 그런데 이 기간 개신교는 1.6% 감소하였다. 이 십년 사이는 어찌면 구도자 예배가 절정에 달하여 상당히 보편화되었던 때인데 교인의 수는 줄어들었다는 아이러니가 나타났다. 목회사회학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천주교의 성스러움에 이끌리었다. 현대인들은 종교의 선택에 있어서 더 이상 재밌고 신나는 곳을 찾지 않는다. 자신의 삶과 멀지 않는 그곳으로 다시 찾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인들은 거룩함과 상징으로 대표되어지는 종교를 선택한 것이다. 분명 현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욕구가 있다.

개신교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읽지 못했다. 구별되어진다는 의미의 거룩함 보다 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삶과 종교를 밀착시킬 것인가에만 관심을 두었다. 예배를 준





비함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루하지 않게 한 시간의 짜여진 예배를 스마트하게 드리고 갈 수 있을까만 생각했지 정작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영적 감흥은 주지 못했다. 이러한 것들의 결과가 바로 교인들의 감소로 이어졌다고 본다.

이러한 현상들로 볼 때 분명 한국교회에서도 이머징 문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제 구도자 중심 이후(post-seeker-sensitive)의 시대를 맞이해야 한다. 그것은 전통의 회복이고 동시에 거룩의 복귀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맞닥트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집단이 아니라 각 개인들로 하여금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것이다. 현대의 새 옷을 입은 전통 안에서 거룩을 맞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머징 예배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 신비성과 예술성, 그리고 유기성을 갖춘 예배모임이 우리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김볼이 제시하는 형태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직접 적용해 보기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대안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주일예배 외의 시간에서 실험해 볼 필요는 있다. 분명한 것은 현대인들에게 이러한 영적 경험을 바라는 욕구들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제시할 때에 사람들에게서 거부되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을 이제 버려도 될 것 같다. 좀 더 진지하게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갈 필요가 있다.

물론 이머징 교회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유행일 수 있다.

패션에서 나타나는 <빈티지 스타일>이나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의 스타일을 지향하는 <스팀 펑크>(Steam Punk)와 같이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바일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도자 중심의 세대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그 대안이 이머징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단기선교 준비하기

| 조세영 목사 say130@hanmail.net 前 용두동교회 청년담당 現 금성교회 담임 young2080 정책위원

I. 단기선교 기획은 이렇게~

1. 교회 선교의 현주소를 파악하라.

- 현재 자신의 교회내의 선교에 대한 인식도 및 선교적 역량 (인적, 물적, 전략적) 수준 파악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처음 단기선교를 시작하는 교회라면 <비전트립>이나 정탐여행팀을 보내어 리서치 및 전략을 세우게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역중심적인 팀을 보내어 선교현장의 실제적인 필요를 돕는 일을 할 수 있다.
- 이미 수차례 선교여행을 진행한 교회라면 필히 기존의 선교여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





2. 훈련된 기획팀을 세워 단기선교 전반을 진행하게 하라.

- 먼저 진행하는 교역자가 올바른 선교적 관점(Perspectives)을 가져야 한다. (가능한 선교경험이 있고, 선교훈련 받은 교역자를 중심으로 기획팀을 세우는 것이 필요)
- 기획팀에는 담당교역자, 교회선교위원회의 담당, 청년리더(선교팀장)를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면서 단기선교의 전 과정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좋다.
- 기획팀은 최소한의 선교훈련을 받고, 선교에 대한 책을 읽고 준비해야 한다.

3.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하라.

- 우리는 왜 단기선교를 가려고 하는가?
- 단기선교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가?
-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세울 필요가 있다.
-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 선교비전 세우기, 팀워크 훈련, 선교사 발굴, 훈련을 통한 영적성장 등 다양한 목적이 있으나, 선교사와 선교현장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4. 선교여행을 갈 나라를 선정하라.

- 교회에서 파송했거나 혹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는 나라가 1차적인 선정 대상이 된다.
- 그렇지 않다면 선교지의 거리, 비용, 위기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해야 한다.

5. 선교사 또는 협력단체를 선정하라.

- 나라를 결정했다면 함께 동역할 현지선교사를 선정하라.

- 파송, 협력 선교사 있다면 문제가 없지만, 대상국가의 선교단체, 선교사를 찾아 보고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문 선교단체 도움도 중요)

II. 선교여행 준비는 이렇게 하라.

선교현장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철저하고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교회가 준비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선교현장의 선교사가 어떤 사역철학을 갖고 준비하여, 팀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하다. 따라서 교회와 선교사의 소통이 중요하다.

1. 선교사와 커뮤니케이션을 구체적으로 하라.

- 따라서 준비단계에 가능한 자주 선교사와 <커뮤니케이션>하라. (사전답사가 최선, 여의치 않으면 이메일과 전화를 이용하여 수시로 서로 연락)
- 미리 사역기간, 사역내용, 사역일정, 준비사항을 구체적으로 협의

2. 단기선교를 위한 마스터플랜을 세우라.

- 선교사와의 사전 협의 끝났으면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교회의 필요가 아니라 선교현장과 선교사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우선순위)
- 기간, 사역내용, 예산안, 홍보방안, 훈련계획에서 피드백과 사후처리까지, 한 눈에 전체적인 일정을 볼 수 있도록 마스터플랜을 작성하라.

3. 실제적 여행준비를 하라.

- 여행사와의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 (여행사 3개 정도의 견적 후 선정)
- 대상국가의 홈페이지나, 대사관, 관광 안내책자 등의 자료를 참고





4. 홍보와 팀원 모집을 시작하라.

- 브로슈어를 제작하거나, 배너 및 현수막, 홈페이지, 홍보동영상 등을 통해 모집.
- 먼저 해야 할 것이 담당목사의 선교에 대한 비전과 열정, 설교를 통한 동기부여이다.
- 교회 전체 안에 선교에 대한 비전을 불러일으키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기도와 재정 및 물품 지원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는 것이 필요)

* 잘 준비된 팀의 첫번째 특징은 사전에 선교사와 충분한 의사교환을 해 왔다는 것이고, 둘째, 선교사와 현장의 필요에 맞는 사역적인 준비를 철저하게 해 왔다는 것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섬기려는 마음과 함께 배우려는 자세를 갖는다.

III. 선교여행 훈련은 이렇게 하라.

1. 훈련에 대한 패러다임을 전환하라.

- 〈선교 세미나〉 혹은 일정 기간의 〈선교훈련학교〉 등 강의실에 듣는 강의가 전부인가?
- 훈련은 팀원 모집 이후 세미나(선교훈련학교)와 준비모임, 현장에서의 실제적 사역, 그리고 돌아와서의 평가모임과 보고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것이다.
- 선교여행 이후의 삶까지 염두에 두면서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훈련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라.

- 훈련내용은 선교지 국가의 상황이나 선교사의 요청사항과 참가 대상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번 단기선교를 통해 기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다각도로 고려하라.
- 신앙기초훈련부터 시작해야 한다. 말씀과 기도생활이 체질화될 수 있도록, QT, 성경읽기, 암송, 중보기도 등의 훈련을 한다. (팀모임 시 체크해 주는 것이 필요)
- 단기선교의 성경적 기반, 타문화 커뮤니케이션, 대상 국가리서치, 선교현장이야기, 사역리를 비롯, 구원의 확신, 복음의 내용에 대해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역훈련은 선교현장의 언어를 간단한 회화 정도는 배우고 가야 한다. (선교지가 공개적인 복음전도가 거의 불가능한 경우, 관계중심(생활) 전도를 훈련)
- 5분 간증을 나누는 법, 간단한 복음제시법도 동시에 배우라.
-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웍 및 생활훈련이다. (건전한 자기이해 및 타인 이해) DISC, MBTI, 애니어그램 등을 워크숍으로 진행하거나 1박2일의 캠프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팀웍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하다.
- 팀원 각자가 기도후원자를 모집하고(1인당 10명 정도가 적당) 기도 편지를 작성하도록 한다. (선교 출발 전 기도 후원의 밤을 개최하면 좋다)
- 여권이 없는 팀원은 여권을 미리 만들도록 지도한다.

3. 위기관리 교육은 필수이다.

- 반드시 위기관리교육을 받고 나가야 한다.
- 위기 상황은 납치, 교통사고, 분실, 질병, 천재지변, 내란 등 많다. 피하는 방법과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든 팀원들이 숙지하도록 한다.

IV. 선교여행 사역은 이렇게 하라

먼저 <여행상식과 여행예절>을 지키는 팀이 되라는 것이다. 공항에서나, 기내에서나, 호텔에서나, 현지에서나 타인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은 스스로 삼가도록 한다. 우리는 선교팀이자 동시에 대한민국의 민간외교관임을 잊지말라.





1. 사역의 핵심은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다.

- 팀별로 준비를 철저히 해 왔기에 부푼 기대감 갖고 출발한다. 이때가 가장 위험한 때!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 구제물품,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가르치는 자, 돕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배우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 첫째는 그들의 문화를 배우라.(성육신의 원리) 둘째는 그들의 언어를 배우라. 언어를 배움으로 그들의 친구가 되어가는 것이다.

2. 우리의 사역이 아닌 선교지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초점을 가지라.

- 현지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화되어지는 필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라. 단기선교는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역을 하는 것이다.

3. 매일 경건회로 시작하여 평가기도회로 마무리하라.

-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팀 경건회로 하루를 시작하라.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말씀을 묵상하고, 그 땅을 위해 중보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라.
- 하루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는 그 날의 사역과 삶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라. 하나님께, 선교사에게, 현지인에게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중심으로 나눔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세우는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
- 팀 안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반드시 풀도록 하라. 관계 안에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용서하고 축복하는 시간 통해 팀웍을 항상 유지하라.

4. 팀으로 사역하라.

- 팀으로 사역하는 것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것이다.

- 은사를 따라 역할분담을 적절하게 하고, 수평적인 구조속에서 팀사역을 하자.
(리더십팀(3인), 서기, 회계, 시간관리, 물품관리, 사진담당)
- 주의할 것은 내가 경험하거나 들은 것을 기반으로 쉽사리 선교사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둘째, 선교사 및 현지인들에게 물질과 관련된 약속을 삼가라. 셋째, 매일의 일지를 통해 그날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기록하라. 넷째,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라.

V. 선교여행 평가는 이렇게 하라.

평가를 통해 팀의 목적과 목표를 어느 정도 성취하였는지를 점검, 앞으로의 방향을 찾아가는 일이다. 평가의 영역으로는 파송전의 준비정도, 사역진행적 측면, 선교사의 준비 정도, 사역의 결과, 팀웍, 재정, 개인건강생활 등 다양하다.

평가는 잘한 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으로는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잘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는지를 살피고, 잘하려고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보라. 마지막으로 팀이 잘못했거나 또는 실패한 일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라. 부정적인 평가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한 평가의 과정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지를 더 잘 섬기는데 도움이 되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1. 디브리핑(debriefing)하는 시간을 가지라.

- 디브리핑은 선교여행의 경험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피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말한다. 마지막 날에 선교사와 팀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가르쳐주신 것들을 나눔으로 하나님과 선교사, 그리고 서로에게 감



사를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라. 성찬식을 마지막으로 가지면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재현시키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유익할 것이다.

– 좀 더 본격적인 디브리핑의 시간은 선교여행을 마친 후 1주일~한 달 안에 갖는 것이 좋다. 먼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면서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반추해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진다(개인적인 평가). 그 후 팀으로 함께 모여 서로 나눔으로 선교여행의 전 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다(팀에 대한 평가). 실제 선교여행을 통해 감사의 제목도 있지만 동료들로 인해 서로 다투기도 하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그로 인해 각자 안에 상처와 쓴뿌리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까지 솔직하게 나누어야 한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는 시간을 통해 정서적으로도 잘 마무리해야 한다.

2. 감사를 전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라.

– 선교여행을 위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신 분들과 재정 및 물질후원과 격려를 해 주신 분들에게 꼭 감사를 전하라. 또한 잊지 말아야 할 분은 바로 선교사와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꼭 감사의 인사를(이메일이나 전화) 전하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다면 이메일에 첨부해서 꼭 보내주라. 그리고 선교지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지라.

– 팀으로는 공식적인 보고회를 갖겠지만 개인적인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이다. 더 잘 나누기 위해서는 선교여행 기간동안 일기를 통해 그 날 있었던 특징적인 사건과 경험들을 구체적으로 적고, 관련 자료를 더불어 보관하는 것이 좋다.

– 그러나 나눌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간단하고 핵심적인 영역만 한 두가지 나누는 것이 좋다. 또한 부정적인 보고 혹은 선교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을 삼가라.

3. 동원자료를 작성하라.

– 우리가 다녀온 선교지가 어떤 곳이고, 어떤 필요들이 있는지 그 상황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일은 너무 중요하다. 동원자료를 작성할 때는 그것을 사용할 대상이

누구이며, 어떤 그룹인지를 고려해야 한다.

- 동원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소책자 형태의 기도 가이드북, 도시 프로파일, 종족 카렌다. 기도카드, 사진 및 동영상, 프리젠테이션 자료 등이 있다.

4. 선교보고회를 다양한 형태로 가지라.

- 잘 준비된 보고회는 교회가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만들고, 구체적으로 헌신하게 하는 힘이 있다. 주일오후 예배, 수요일예배 등에서 20-30분 정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그 내용으로는 현지어 찬양, 간증, 그 다음으로 종족(지역) 소개를 한 후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면 된다.

- 보고회를 가질 때 주의할 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선교지가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 사진 및 동영상 자료에 팀원들의 얼굴보다는 현지인들과 현장배경이 중심이 되게 하라.

5. 모든 서류 및 자료를 파일화하라.

- 출발 전부터 마무리하는 단계까지의 모든 자료를 파일화하라. 모든 자료는 문서, 사진, 동영상, 등으로 분류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서를 잘 정리하여 다음 팀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라. 다음 팀을 위해서는 단기선교 핸드북을 만드는 것도 좋다.

VI. 선교여행 후속은 이렇게

1.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라.





– 데이빗 브라이언트에 의하면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은 ‘세계 복음화의 과업’을 완수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대위임령을 성취하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제자’ 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보내는 자로 살라.

– 국내에서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방법 중의 하나는 보내는 자가 되는 것이다. 소위 보내는 선교사로 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선교헌금을 시작하라.
– 기도를 보내는 일을 해야 한다. 교회안에서 중보기도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

3. 동원하는 자가 되라.

– 동원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선교사로 특정한 지역에 가기보다는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선교자원을 일깨우고 헌신시키며 선교에 동력화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 교회안에서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만들고, 재정과 더불어 인적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4. 환대하는 자가 되라.

– 우리나라는 이미 다문화사회에 접어들었다. 수 많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은 굳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선교현장에 바로 옆에 다가와 있는 것이다. 먼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라.

선교여행의 열매는 변화된 삶이다. 단기선교를 통해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면, 그 결과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선교여행을 망치는 12가지 사항

(WORLD CHRISTIAN MAGAZINE 1983 중에서)

1. 혼자 한다. 당신은 젊고 유능하기에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당신 스타일이 아니다. 혼자 계획하고, 준비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다 된다고 확신하라.

2. 당신은 영적인 목적으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라. 높은 이상을 가지고 오직 복음 전도에만 전념하라. 문서정리, 심부름, 청소, 집 지키기, 음식준비 등은 당신의 영적인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3. 매일하는 기도와 성경공부를 포기하라. 당신은 이미 충분히 성숙해 있다. 더 이상 자라지 않아도 된다. 당신에게는 나누어줄 영적인 양식이 늘 풍부하다. 그들보다 영적인 수준이 높다. 개인적인 성경연구나 기도에 들일 시간이 없다. 너무 바쁘기 때문이다.

4. 조직적으로 준비하라. 떠나기 전에 완벽한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절대 물러서지 말라. 일이 지연되지 않도록 무리를 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고, 변화를 거부하라.

5. 선교사들의 실수를 지적해서 그들을 도우라. 선교사에게 최신 선교학 이론이나 정보를 건네준다. 선교사와의 갈등이 있을 때에 당신을 지지해 줄 현지인을 찾으라.

6. 단기선교는 이성교제의 완벽한 기회이다.



7. 현지언어를 귀동냥하느라고 애쓰지 말라.

8. 팀 동료의 실수를 그 자리에서 지적한다. 지도력을 비판하라. 다른 사람을 자기 기준과 방식대로 고치려고 하라. 지금 안 고치면 평생 못 고칠지도 모른다. 당신은 사명이 있다.

9. 더러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지음식을 먹지 않도록 조심하라.

10. 팀 동료 중 후원금을 충분히 모으지 못한 이들을 지켜본다.

11. 집에 소식을 알릴 때에 당신의 동역자들을 혹평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당신을 더욱 존경할 것이다.

12. 모든 것이 끝나면 해외사역의 고참으로서 〈명예제대〉를 했으니 앞으로 선교 일은 하지 않아도 된다. 장기선교를 거부하라. 당신은 이제 고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차례이다.